

1. 세계 아동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아동 (원시사회~봉건사회)

- 인격적 권리를 지닌 존재보다는 부모의 소유
- 아동=종족보존의 수단
- (1) 원시사회: 생산력 낮아 공동체사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희생시키기도 함.
- (2) 고대사회: 유기
 - 종족수단의 보존가치가 있는 건강한 아동의 가치만 인정- 병약한 유아, 장애아에 대한 배제
 - 노예아동: “말하는 가축” (아리스토텔레스)
 - “아동은 부모가 아닌 폴리스에 속한다” (플라톤)
 - 고대 끝날 무렵: 종교 확장→자선사상 발아(기아,고아 등 보호 활동 시작)

(3) 중세봉건사회

- 장원을 중심으로 자급자족 경제단위 확대
→ 영주-농노의 지배관계 확립, 상품경제 발달
- 공동체 안에서 상호부조적 양육: ex.농노 고아
- 종교적 자선사업: 각 교구의 자선기관에서 보호
- 고아: 입양, 교회/수도원, 구빈원에서 양육
5~6세→ 도제
- 신분에 의한 계급사회
: 귀족-가계의 계승자, 평민-무가치한 생명
- 부(남성 가장) > 가축 > 모 > 아동
(富)

- 서양사회의 전통적 아동관

: 원죄설에 입각

*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신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기독교 신학의 교리

: 아담의 자손 → 죄악 → 아동은 원죄의 씨앗 → 부모는 가능한 한 아이를 멀리하고 방해물로 취급 → 유모 or 수도원

** 엄격한 교육 & 어른의 강압적 자세를 정당화

- **1601년 영국 「구빈법(poor law)」**
 - 아동복지의 기원을 마련
 - 위탁보호제도, 도제(apprentice) 제도 입법화
 - 시설수용아동 수의 감소에 기여
 - 직업능력 습득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인권무시 및 노동력 착취의 문제 (열악한 워크하우스)
- **교구위원&빈민감독관이 치안판사 동의를 얻어 남(~24세), 여(~21세)or 결혼시까지 도제로 보냄.**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

- 빈민의 분류(빈민 억압책의 부분적 포기)
 - **노동무능력빈민**: 구빈원, 자선원에 수용 보호.
 - **노동능력빈민**: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
 - **아동**: 도제.
- 정부의 구빈책임(교회가 아닌)을 법적으로 천명.
 - 정부(**지방정부**)의 구빈행정을 위해 지방세 증액, 구빈감독관(1572년 처음 등장. 교구 구빈제도 운영자, 시장이 임명)이 구빈 업무와 구빈세 부과, 징수업무 관장.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검무보수 시장인 치안판사가 임명, 감독. 치안판사는 추밀원의 의무환기 편지로 임무 독려.

2) 근대의 아동

- 장원제도, 농노제도의 붕괴 → 도시인구 유입 증가 → 빈곤, 실업, 주택문제 등 사회문제 출현
- 구빈원(poor house, 救貧院) 중심의 구호활동
: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아동 사망 빈번

(1) 계몽주의와 루소(Rousseau, 1712~1778)

- 계몽주의자: 절대적 신 중심 사고 → 인간의 이성 중심
“어린이들은 인간으로, 또 자유인으로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며 그들 이외의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루소)”

- **루소의 아동관&교육관**

- 1. 성선설**

- : “만물은 창조자의 손에서 나올 때 선하다”**

- 2. 발달단계론**

- :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 각각 발달단계의 교육과제를 제시**

- (ex. 어린 시기-소극적 교육을 통한 자연본성 보존
청소년기 이후- 적극적 교육으로 사회성 성장 도모)**

- 3. 자연주의 교육관**

- : “자연으로 돌아가라” - 인간성 회복**

(2) 자본주의 시대의 아동과 오웬

•산업혁명, 기계제 생산양식의 도입으로 인한 아동 노동 증가 (p47)

➔ 이에 반대하는 노동운동

➔ 1833년 「공장법」 제정을 통해 아동의 노동조건에 대해 개선됨

- 9세 미만 아동의 노동 금지
- 아동노동자의 건강 및 연령 확인 의무화
- 9~13세 아동의 1일 노동시간 제한(9시간)
- 13~18세 아동의 1일 노동시간 제한(12시간)
-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 매일 2시간의 학교공부 시간 부여 (But, 미래의 노동력으로서의 아동보호적 성격 강함)
- 법률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공장감독관(factory inspector) 임명

◆ Owen(오웬)

- 협동조합(協同組合)의 창시자
-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 강조 (p48)→ 사회환경 개선 강조
- 성격형성학교(1816) 설립 & 아동보호 입법 촉진 운동
- 오웬이 설립한 초기의 노동자를 위한 커뮤니티 사진(p49)

→ 성인 노동자가 조직화&강화→그들 자녀(아동 노동)에 대한 문제에 관심

- 18세기 까지 빈곤아동의 교육은 민간의 자선학교가 도맡음.

3) 현대의 아동

- 20세기 '아동의 세기'(엘렌 키, 1849~1926) p50
-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조(p51)
 - 1909년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개최. 10년마다 개최
 - 가난을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 됨
 - 가정의 차선책으로 위탁가정 보호 제공
 - 시설의 경우, 소숙사형태(cottage system)로 운영

- 일반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제도 도입
 - : 노동운동→각종 사회정책 촉진→사회개량활동&사회운동과 연결
 - 아동위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국가규모의 책임하에 시행되는 정책 등으로 보편주의 실현/책임소재 명확히

- 대규모 아동시설보다는 소규모 가정시설
 - 위탁가정 보호 확대

- 아동권리 운동의 등장
 - 1924 제네바 선언
 -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 선포
 - 1979년 세계아동의 해 지정
 -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통과

2. 한국 아동복지의 역사

- 서양과 유사
 - 고대로부터 아동보호에 대한 장치 有
 - 현대에 이르러 아동복지사 역사적 산물로 탄생
- ✓ 아동(兒童)
 - 兒 = 숨구멍 신 囟 + 사람 인 人
 - 童 = 무거울 중 重 + 매을 신 辛 / 허물 신(罪)

1) 전근대 한국의 아동구제사업

(1)고려시대

- 전통적 구제대상: 홀아비/과부, 어리고 부모 없는 사람,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등 (환과고독: 홀아비鰥, 적을 寡, 외로울 孤, 홀로 獨)
- 고려시대 성종 13년(994년) 고아에게 10세까지 식량 지급, 원하는 곳에 거주케 함
→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구제
- 충목왕 3년(1347년) 해아도감 설치 → 관립영아원
(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 1884 신빈민법)

(2) 조선시대

- 조선시대 정조 7년(1783년) 「자휼전칙(字恤典則)」
 - 전근대시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법령: 국가책임&역할 강조
 - 유기 아동의 관가 또는 민가의 수양을 허가(수양 허가제)
 - 유기아: 0~3세, 행걸아: 4~10세
 - 수양(收養), 유양(乳養, 수용보호), 솔양(率養, 고공(관가노비), 노비)
 - 진휼청 유접소(留接所), 진장(지방)의 수용보호



출처: 충청수영 진휼청 <http://blog.daum.net/hsykms>

- **자활전칙의 주요내용(9)**

- 1) 나이 및 구제기간**

- : 유기아(遺棄兒): 0~3세, 행걸아(行乞兒): 4~6, 7~10세

- 2)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친족책임의 원칙**

- 3) 행걸아 구제방법**

- : 수양收養 , 유양乳養(일종의 간이주거시설), 솔양率養 (고공, 노비)

- 4) 유기아 발견, 보고절차: 주로 진휼청**

- 5) 젖어미 제도: 유기아동, 걸식아동 구제**

- 6) 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추거(본래의 연고권자가 찾아가는 것)**

- 7) 서비스 절차와 사후감독**

- 8) 의복과 의료구제(진휼청 헤민서)**

- 9) 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2) 근대 한국의 아동복지: 조선말~해방이전

- **종교기관 중심의 고아원 설치**
 - 1883(고종) 고종천주교회 고아원
 - 외국선교단체, 민간 독지가 등
- **외원 기관에 의한 교육사업**
 - 선교사에 의한 학교설립
 - 1921 태화사회관-아동복지사업
- **천도교의 아동복지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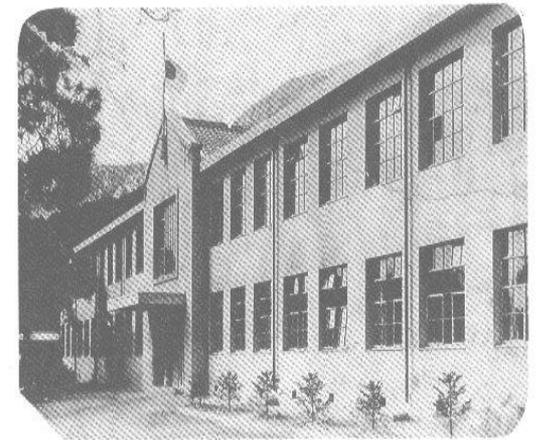
(1) 19세기 말~대한제국기까지

- 조선 말 고종 25년(1888년) 프랑스 교회가 천주교회 고아원 개설
: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아동복지시설
- 이필화가 광무 10년(1906년) 경성고아원 설립
→ 근대적 성격의 아동복지사업 시작
 - 황실하사금, 정부보조금, 기부금으로 운영

(2) 일제강점기 한국의 아동복지

①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산하에 제생원(濟生院) 설립(1911) p58

- 빈곤아동과 맹아들의 교육&자활 도모
- 경성고아원 인수, 국립육아원의 전신
- 맹아부의 경우 현 국립 서울맹학교로 이어짐



1940년대의 서울맹학교 모습

출처: 제생원 <http://blog.daum.net/aroma-may>

② 천도교의 소년운동

* 민간차원의 아동보호 노력

- ‘어린이’ 이라는 순 한글말 보급
- ‘어린이날’ 제정(1923년 5월 1일)
- ‘소년운동선언’ 발표 →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선언(p62)

→ 식민지 시대의 교육 계몽 운동으로 전개

*천도교: 조선 후기 1860년에 최제우(崔濟愚)를 교조로 하는 동학(東學)을 1905년 제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천도교로 개칭한 종교.

“양반도 천민도 없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③ 영흥학교의 설립과 감화구제사업(p63)

- 조선감화령

: 8~18세 고아, 불량 소년 감화시설 설치

(영흥학교-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비행청소년
감화구제시설)

④ 태화사회관의 아동보호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감리교, 1921)

- 아동보건(태화진료소)과 사회사업의 전개

⑤ 총독부의 아동애호운동

- 천도교의 소년운동, 기독교의 아동보호사업 등으로 주도권을 잃은 총독부가 1920년 말부터 대대적 아동애호운동 벌임

- 전쟁준비의 성격(일본의 대륙침략)



감화원 안산 선감학원
출처: 안산정론신문 김석일기자

3) 현대 한국의 아동복지

(1) 광복(1945)~ 1950년대

p66

요보호아동의 증가/ 전쟁고아의 해외입양/ 아동후원사업의 전개

- 국내외 민간단체 중심의 아동구호사업
 - 전체시설 중 70%가 아동시설: 시설중심의 아동복지사업
 - 빈곤계층 아동 대상의 민간, 외원기관에 의존한 사회구호사업(시설아동+거택아동도 포함)
- 1946년 아동노동법규 제정을 통해 아동노동 규제

- 민간자원에 의존한 응급적 시설수용중심의 아동구호 정책
- 국가책임보다는 민간자원과 시설의 재정적 자립을 강조
 - 외원 의존을 불가피하게 만듦
- 외원기관: 기독교아동복지회(한국복지재단), 선명회세계본부(월드비전)

(2) 1960~1970년대

p69

◆ 제3공화국- 아동보호 법제화(19개 복지관련 입법)

- 1961 생활보호법
- 1961 고아입양특례법
- 1961 미성년자보호법 → 1999년 폐지
- 1961 아동복지법 → 1981 아동복지법
- 1970 사회복지사업법

◆ 1970년대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감소, 외원기관의 철수 및 사업축소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국가보조의 증대

◆ 국내입양의 침체로 인해 해외입양은 계속 증가함

◆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욕구 증대

→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잔여적) 보호대책



1961.5.16

출처: <http://www.nacham.com>

(3) 1980년대 이후

p69

✓ 제5공화국 (당시 대통령: 전두환)

-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 제정
 - 요보호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포함
 - 아동상담소의 법정기관 지정
 -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한 모성 보호
- 탁아(보육)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탁아시설을 아동복지시설에 추가함(1989년)
- 1990년 3월 방에 갇혀 지내던 남매의 화재사망을 계기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아동학대고발센터(1979) 개설, 아동학대예방협회(1989), 아동학대신고센터
-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

➔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내용이 포함

경비원 아바 파출부 엄마 일나간새 불 잠긴 지하셋방 남매 질식사

“길 잃어버릴까” 밖에서 자물쇠 채워

경비원 아버지는 자택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던 1991년 12월 24일 새벽 4시경, 경비원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문을 열어 잠금쇠를 풀었다.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는 14살과 11살의 두 남매가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던 두 남매의 얼굴을 보며 “아, 잠이 안 오겠네”라며 걱정스러워했다. 잠이 안 오자, 아버지는 두 남매의 손을 잡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문을 열어 잠금쇠를 풀었다.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는 14살과 11살의 두 남매가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던 두 남매의 얼굴을 보며 “아, 잠이 안 오겠네”라며 걱정스러워했다. 잠이 안 오자, 아버지는 두 남매의 손을 잡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문을 열어 잠금쇠를 풀었다.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는 14살과 11살의 두 남매가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던 두 남매의 얼굴을 보며 “아, 잠이 안 오겠네”라며 걱정스러워했다. 잠이 안 오자, 아버지는 두 남매의 손을 잡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문을 열어 잠금쇠를 풀었다.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서는 14살과 11살의 두 남매가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던 두 남매의 얼굴을 보며 “아, 잠이 안 오겠네”라며 걱정스러워했다. 잠이 안 오자, 아버지는 두 남매의 손을 잡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문을 열어 잠금쇠를 풀었다.



탁아소 필요아동 82만명

보사부 92년까지 달동네 1천2백개 계획

별도법 만들어 설립 지원해야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제정안을 통해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달동네 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탁아소를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달동네 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탁아소를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원기관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 **시설수용보호사업의 퇴조**
-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강화,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